

월급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 못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해야
내 삶이
바뀐다**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말도 안되는
규정은
당장 삭제**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을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기준을 옮기니
월급이 줄어드네?**



**산입범위
개약으로**



**삭감된 월급,
정상화 해라!**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든
최저임금은
줘야지!**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럼 공익위원 9명은
누구 편이냐?



정부 입맛대로
공익위원
이제 그만!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등골 빼먹는 경총이 영세 자영업자를 걱정한다고?



고양이 쥐 생각마라!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 못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해야 내 삶이 바뀐다

최저임금 올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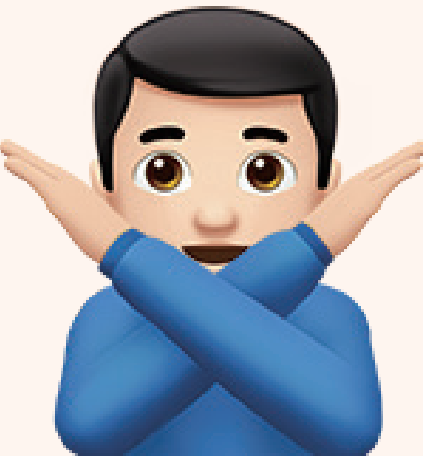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말도 안되는 규정은 당장 삭제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기준을 옳기니 월급이 줄어드네?



산입범위 개악으로 삭감된 월급, 정상화 해라!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든 최저임금은 줘야지!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럼 공익위원 9명은
누구 편이냐?

정부 입맛대로 공익위원 이제 그만!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등골 빼먹는 경총이

영세 자영업자 걱정?



고양이 쥐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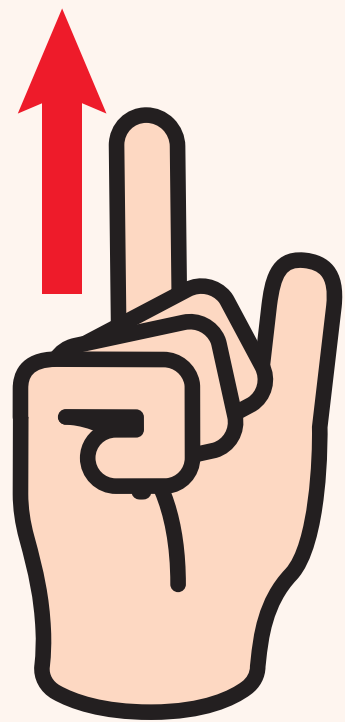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은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민주노총

살이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면?

전국무료노동상담 1577-2260



최	저	임	금
드	립	백	일
장			



공모기간 2024년 6월 1일~6월 15일

심사기간 2024년 6월 16일~6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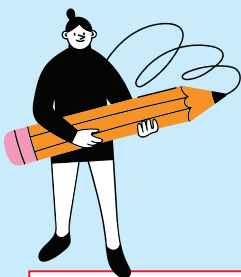
발표 및 시상 2024년 6월 22일

공모부문 운문부(N행시) / 산문부(자유유형)

상품 운문부, 산문부 동일

- 장원(대폭인상) 1명 에어팟 프로 2세대
- 최우수 1명 드립백 + 에코 텀블러
- 우수 3명 드립백 + 핸드크림
- 수상 산입범위 3명 드립백 + 와퍼세트 쿠폰
- 드립상 2명 드립백 + 꿀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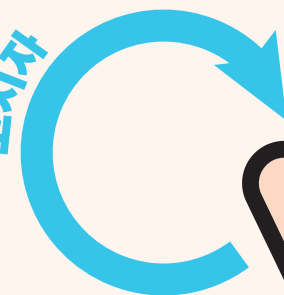
최저임금 드립 백일장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금



고치자



넓히고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

최저임금 올리고

내 삶을 지키고

노조와 함께해요

월급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 못살겠다!



가구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2022년 임금인상률 4.9%, 물가상승률 5.1%
2023년 임금인상률 2.5%, 물가상승률 3.6%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월급은 찝끔찝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월급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엄살입니다.
골목상권마저 파고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대기업이,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 해 망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입니다.
높은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마트휴일 폐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임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는 최저임금요구안이 12000
원이었습니다. 물가폭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높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갑에 쓸 돈이 있어야 동네에서 외식도 하고
시장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져가는 현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말도 안되는 규정은 당장 삭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말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목적에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의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의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수 경제학자와 경제지, 여당, 경영계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차등적용'을 꺼내지 않도록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든

최저임금은 줘야지!

사용자들이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맺은
사업계약형태(특수고용)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택배, 배달노동자, 가전방문관리, 웹툰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800만 명이
넘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생활안정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